

지방자치·종합

메가톤급 악재 새누리당 패닉

야권선 “김효재 수석도 물러나야” 총공세

돈봉투 파문 박의장 사퇴... 후임 홍사덕·이해봉 거론

새누리당 2008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은 박희태 의장이 9일 전격 사퇴하면서 총선을 앞둔 야권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

새누리당은 “메가톤급 악재가 터졌다”며 사실상 공황 상태에 빠졌다. 민주당 등 야권의 공세가 번한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경우 돈 봉투 사건이 총선기간 내내 이슈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박 의장의 전 비서 고명진씨는 검찰조사에서 ‘지난 2008년 7월 전당대회 직후 고승덕 의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돌려받은 뒤 당시 캠프 상황실장이던 김효재 청와대 정부수석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

지면서 파문이 확산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당원까지 바뀔까면서 전방위적인 쇄신에 나섰지만, 박 의장이 사퇴하면서 자칫 그간의 쇄신 노력이 물거품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당에서 수차례, 그것도 아주 강하게 자진 결단을 요구하지 않았느냐”라면서 “박 의장이 왜 이렇게까지 사태를 키웠던 당에 부담을 주느냐”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당직자는 “민심이반으로 안 그래도 총선이 어렵게 생겼는데, 이번 사건으로 더욱 어렵게 됐다”며 “이번 사건으로 민심이 더욱 흉흉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이명박 정부와 단절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구(舊) 체제와 선을 긋지 않고 선 총선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의장 사퇴 직후 야권은 대어 공세 수위를 더욱 높여가고 있다.

박영선 최고위원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박 의장 사퇴는 너무 늦었다. 국회의장이 이렇게 물러나야 하는 현실이 대한민국을 매우 슬프게 한다”면서 “박 의장 말고도 더 물러나야 할 분이 또 있다. 김효재 청와대 정부수석도 물러나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치검찰이 아닌 성실한 검사들, 이제 일어나 우리 국민을 위해 제발 성실한 수사, 공정한 수사를 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통합진보당 천호선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자신들의 불법을 아랫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며 자리와 권력에 연연하는 박 의장의 모습에 국민은 혐오감을 느낀다”며 “박희태씨는 이제라도 스스로 검찰에 나가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박 의장이 이날 사퇴함에 따라 후임 국회의장 선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보로는 6선인 정몽준·홍사덕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또 친박계 중진 중 처음으로 지난날 불출마를 선언한 4선의 이해봉 의원이 적임자가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회법 제16조 보궐선거 조항에 따르면 의장 또는 부의장이 결원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돼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서 경쟁정치 살리겠다”

이정현 의원, 서구 을 출마 선언

새누리당 이정현(비례) 의원은 9일 “광주에서 23년 일당 독점·독식을 심판하겠다”며 4·11 총선에서 광주 서구를 출마를 선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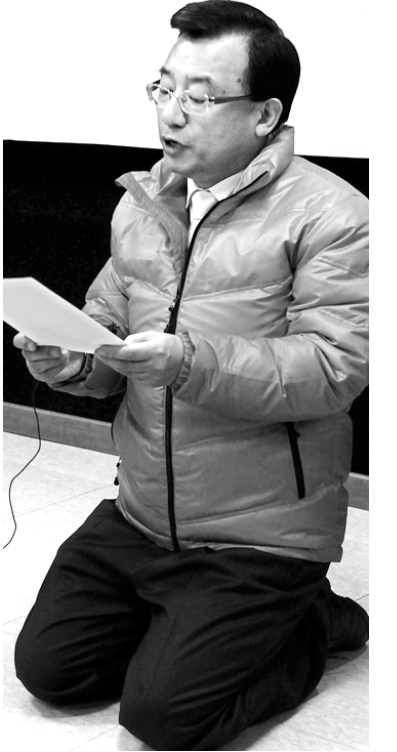
이 의원은 이날 광주서구의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에서 정치경쟁이 사라진 지 27년이 됐다. 광주에서 사라진 정치경쟁을 살려 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할 것”이라며 “23년 동안 난관 일색의 당(민주당)에서 호남 예산 집행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호남정치가 일당 독식·독점을 통해 27년을 온실에서 크다 보니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며 “정치경쟁이 없어 이제 대선 주자 하나 못

내는 호남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남에서는 민주당·민노당 의원들이 나오고 도지사도 나오는데, 호남 정치는 민주당 후보가 공천장을 자판기에 넣으면 당선 증이 나온다”며 “이젠 광주에서도 정치경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서남해안 관광산업, 광주문화산업, 첨단산업으로 호남 르네상스를 열겠다”며, “지역차별 없는 인사 탕평을 위해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광주시민들에게 큰절을 한 뒤 부를을 풀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지지를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시·구의원,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원 못한다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4·11 총선을 앞두고 시·군·구의원 등 지방의원이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과 함께 무더기로 물러다니며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고 있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면 해당 시·구의원들은 반드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고 현역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광주지역 한 예비후보가 ‘시·구의원의 선거운

동’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60조3의 2항(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지방의원도 독립적으로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고 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60조3의 2항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과 예비후보자와 함께 동행하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등이다. 또한,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 중 지정한 1명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선거사무원 등으로 등

록하지 않은 지방의원들이 예비후보인 현역 국회의원을 지지할 경우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예비후보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현역 의원의 예비후보에 해당되는 선거운동을 해야한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의원들의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 ‘지원’ 선거 운동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총·대선 광주연대 본격 활동

공천혁신·야권연대·아젠다 개발 제시

시민단체협의회 등 광주 지역 6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체인지(Change) 2012 총선·대선 광주연대’(이하 광주연대)가 야권연대 촉구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연대는 오는 4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연대와 연합의 연대를 위한 사업 등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9일 밝

혔다. 이들은 최근 삼일집행위원회 논의를 거쳐 사업방향을 논의하고, 이 같은 사업방향을 결정했다.

광주연대는 이를 위해 ▲총선 공동 대응 대구 토론회 ▲총선에서의 야권의 연대와 연합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 ▲2012 시민소리를 위한 원탁 아젠다 개발 및 제시 ▲전국, 전남과 연대를 위한 사업 등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9일 밝

디도스 특검법 등 통과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디도스 특검법’과 미디어법(방송광고판매대행) 법안을 처리했다.

디도스 특검법은 이날 표결 결과 찬성 183명, 반대 9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으며, ‘10·26 재보선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으로 확정됐다.

수사대상은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제3차 개입 의혹, 자금출처 및 사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관련 기관의 의도적 은폐·조작·개입 의혹 등으로 규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영원한 정치 맞수’ 동시 퇴장

박희태-박상천 13대 총선서 나란히 입성

같은 시기 여야 대변인·원내총무 맡기도



9일 국회에서 4·11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민주당통합 박상천 의원

영원한 라이벌로 한 시대를 풍미한 박희태 국회의장과 민주당통합 박상천 상임고문은 공교롭게도 같은 날 여의도 정치 퇴장을 선언, 눈길을 끌었다.

1938년생 74세 동갑내기인 두 정치인은 함께 대한민국 정치사를 함께 걸어온 ‘50년 지기’다.

박 의장은 경남 남해, 박 고문은 고흥에서 각각 태어났으나 1957년 서울대 법대에 함께 입학했으며 1961년 나란히 고등고시 사법과

(13회)에 통과했다. 하지만, 박 의장이 부산고검장까지 오르 반면 박 고문은 순천지청장을 끝으로 검사생활을 마쳤다.

두 사람은 1988년 13대 총선에서 나란히 국회에 입성했다. 박 의장은 민주당통합, 박 고문은 평화민주당에 소속돼 국회의원 생활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같은 시기 여야의 대변인을 맡아 촉출살인의 논쟁으로 이름을 높였고, 1997년에는 양당의 원내 사령탑인 원내총무를 동시에 맡는 등 정치권역의 대표적 맞수로 거론됐다.

박 의장은 문민정부 출범 직후인 1993년 법무부 장관에 올랐고, 박 고문은 국민의 정부 출범 후 초대 법무부 장관을 맡았다.

또 박 의장은 2003년과 2008년

두 차례 한나라당 대표를 맡았다. 17대 국회 전반기 국회 부의장을 지낸 후 2010년에는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에 올랐다. 박 고문은 세 차례 원내총무를 지낸 뒤 2003년 새천년민주당 대표, 2008년 통합민주당 공동대표 등 당의 수장 역할을 맡았다.

이들에겐 시련도 있었다. 박 고문은 2003년 새천년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이 분당해 나갈 때 민주당을 지키다가 이듬해 17대 총선에서 낙선했지만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다시 합당해 치른 18대 총선에서 5선 배지를 달았다.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 당내 국회의원 경선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했다. 박 의장은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에 탈락하는



같은 날 전격사퇴를 발표한 뒤 국회의장 공관을 나서고 있는 박희태 국회의장. /연합뉴스

어려움을 겪었지만 2009년 10·28 재보선 때 양산 지역구에서 당선되며 6선에 성공했고 국회의장에 올랐다.

이토록 동료이자 맞수로 50여년을 살았던 두 사람은 사실상 정계 은퇴하는 날마저 맞춘 듯한 독특한 인연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머나는 뒷모습은 달랐다. 박 의장은 ‘불명예’ 퇴진한 반면 박 의원은 동료들의 박수를 받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행복한 소리' (Happy Sound) featuring a group of people and text about German language courses.

Advertisement for '漢字·漢文指導師資格' (Hanja/Hanwen Guidance Teacher Qualification) recruitment.

Advertisement for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National/Recognized Hanja Guidance Teacher Qualification) recruitment.

Advertisement for '국가공인 (2010. 11.24 교과부 제2010-1호)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 모집(제14기)' (National Recognized Hanja/Hanwen Guidance Teacher Qualification Training Course Recruitment).